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차별화를 통해 수입산물의 대응은 물론 수급조절 등 양계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제도이다.

더구나 자조금사업은 양계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와 정부, 양계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양계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돼 그 이익은 결국 농가로 환원되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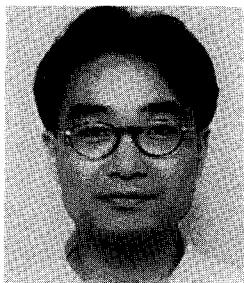
경기침체로 소비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 등 외적변수로 안전성에 도전을 받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그 산업은 설자리를 잃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양계인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돈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현실에서 우리 양계인들은 자성해야 한다. 유독 양계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시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결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조금사업이 정착화되었다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소비량이 격감되었을 때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양계산업을 안정화시키는데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자조금사업은 개방화시기를 맞아 계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양계산업을 지키는 보루로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전양계인이 일치 단결해 자조금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원년(元年)으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며...



이 일 호
(축산신문 기자)

양계산업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원고 청탁을 받을 때마다 기자로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그러하듯 지금까지 제시돼 왔던 것과 같은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거부감과 함께 과연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축산전문지 등을 눈여겨 살펴봐도

양계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는 내용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우를 하지말자’, ‘산란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전근대적 양계산물 유통시스템의 개혁’ 등등.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검증이 필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국내 양계산업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업계의 숙원과제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숙원과제들 대부분이 양계인들 입에서만 오르내릴 뿐 막상 실천이나 추진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여전히 계란 가격은 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좌우되고 있지만 ‘계란공판장 설치’는 매년 정책과제로 정부에 제시되고 있을 뿐 실제 실무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도 또다시 별다른 의지없이 습관처럼 이 내용이 거론될 것이다.

계열화업계와 계약농가간 갈등도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사업부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확정됐지만 그 기능은 아직 미지수이며 도계육 시세 정착도 요원한 것은 마찬가지다.

수년전부터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부각되고 있는 산란노계 처리는 이미 10년전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까지에는 정부나 관련단체들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기자 자신을 포함해 축산전문 언론들의 책임도 빼

놓을 없을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도 숙원과제 해소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양계업계 내부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당장 ‘나’ 자신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없다면 업계의 공동 이익이나 관심사는 ‘강건너 불구경’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누군가에 의해 해결된다면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쫓아만 간다는 그런 식의 사고가 업계에 만연해 있지 않은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에 대응하는 양계업계의 모습을 냉정히 판단해 보자.

공식명칭도 아닌 ‘홍콩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양계산물 소비에 극약으로 작용할 장면과 과잉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언론 대책을 보자. 업계는 흥분만 하고 있을 뿐 실제 행동은 ‘미온’ 그 자체인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양계산물 소비가 일부 품목의 경우 50% 이상 감소, 산업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말이다. 관련단체 대표들이 언론사를 방문하거나 공문발송을 통한 항의나 보도자제 요청이 이어졌지만 자극적인 먹이감(?)을 찾은 대중매체들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계열화업체라는 나름대로 경영규모와 마케팅 능력을 가진 기업군들조차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최초 의사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 효과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의 가상

현실을 바탕으로 사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었을까.

그나마 뒤늦게라도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이어졌다면 “이미 엮질러진 물이었다”, “당황했기에 경황이 없었다”는 계열 화업계의 해명이 기자의 머릿속에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추세가 바로 공동의 대응이나, 선봉장을 필요로 할 때에 ‘나부터’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라는 사고의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물론 지금까지도 적지않은 현안들과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양계인들과 관련

단체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해결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몇몇 지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산업여건하에서, 그것도 작은 정부가 지향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 양계산업이 또, 한 단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양계인들은 냉정히 수용하고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즉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인식, 업계를 강력히 리드하고 포용할수 있는 ‘난세의 영웅’ 출현을 기자는 기다려 본다. **양계**

네 탓은 이제 그만, 한 힘으로 희망을 찾아서



옥 미 영
(축산경제신문 기자)

지난해 급작스럽게 발병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여파로 업계 전체

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관련업체 할 것 없이 모두 인플루엔자로 인한 극심한 고열과 추위, 한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처에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들을 되살리고 그것들을 모아 커다란 희망을 불을 지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 모두가 ‘희망읽기’에 나서야 한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소박한 ‘희망읽기’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희망의 환원이야말로 무기력해진 양계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